

나를 '의사학'으로 이끈 역사읽기

의학보다 역사책에 더 관심... 최신 의학정보는 '불법' 복사로 갈증해소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의사학

이제는 전공을 묻는 사람에게 나는 '의학사'라고 이야기한다. 한동안은 공식적인 '의사학(醫史學)'을 고집하기도 했는데, 열이면 아홉은 고개를 가우뚱하는 (醫師學?)에 대한 편협적인 대응책인 셈이다. 의(醫)의 역사를 다루는 분야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의사라는 직업(인)을 연구하는 독립된 학문분야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잘 들지 않는 모양이다. 내가 실무일을 보고 있는 '대한의사학회'에 걸려 오는 전화만 해도 태반이 '대한의사협회'와 혼동하는 것들이다. 그만큼 의사학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분야이다. 사실 의사학이라고 하면 의학사라고 하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런데도 의사학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것은 의학사라고 하면 의학·의술·의도(醫道)등 의(醫), 그리고 건강과 질병, 환자와 의사 및 그 관계 등 의사학이 포괄하는 폭넓은 범주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왜, 하필 의사학(醫史學)?

의사학이 대중 어떤 학문인지를 나름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다음으로 던지는 질문은 왜 그러한 공부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많은 경우 '왜'에는 '하필'이라는 호기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아마 일반 역사학, 또는 영문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질문에 대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내 전공분야가 알려지지 못한 탓으로 치부한 채 나는 짐짓 의사학의 필요성과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내 대답은 '짐짓'이라고 표현하였듯이 당연히 질문의 주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들은 내과·외과·소아과 또는 해부학·병리학 등 의학의 많은 분야를 제쳐둔 채 내용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낯선 분야를 공부하는 데 대한 내 개인의 '사연'을 듣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것은 나 자신의 사사로운 사항은 남에게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성향에 기인하지만 또한

뚜렷이 내세울 사연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특별한 사연은 없지만 나를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이 의사학이 내게 잘 어울리는 분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연히 이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닌 듯하다. 여기에서 내 이력을 간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생리학'이라는 분야를 선택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고 몇해 동안 생리학 교수 생활을 한 뒤에 의사학으로 '전향'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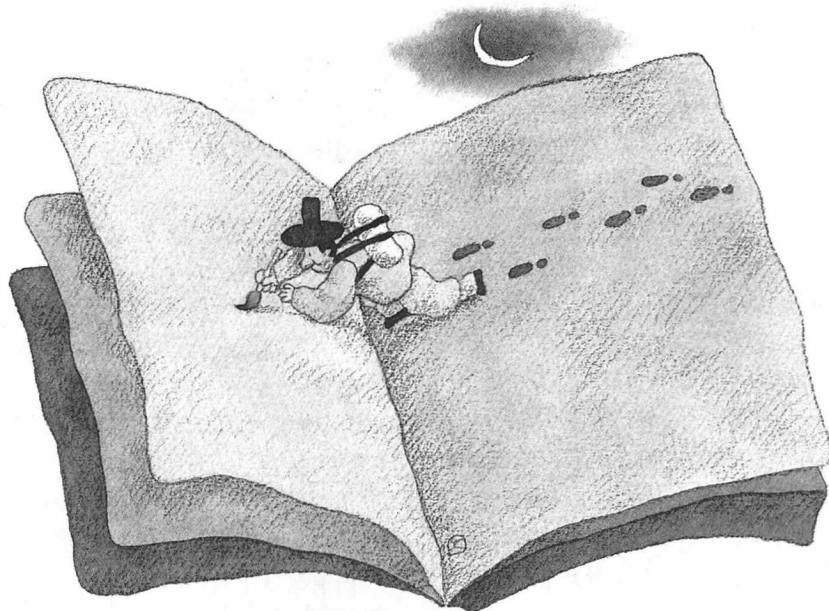
전향에는 무슨 획기적인 사연이나 계기가 있어야 될 성싶지만 뾰족히 내세울 것은 없다. 다만 학생시절과 몇해 동안의 생리학 연구생활을 통해 의학이 지나치게 자연과학 일변도로 발전해가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

의사학에 투신할 결심을 굳힌 나는 전세대 경험이 전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독학으로 세계의 동향을 읽기가 쉽지 않았다. 두차례의 해외연수 때 일주일에 이들은 필요한 책을 복사하는 일에만 바쳤다.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 종일 복사한 후 느끼는 신체적 피로의 신선함이란.

의식에서 비롯된, 유감이 갖든 소회를 품어 왔던 점은 분명하다. 현대의학의 모습과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은 그렇게 된 역사과정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졌다.

다시 말해 현대의학에 대한 역사학 내지는 사회과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거기에 대한 나 나름의 대답을 마련하느라고 고심하였다. 그러면서 그러한 회의와 모색은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토머스 맥킨, 이반 일리치, 비센테 나바로, 미셸 푸코 등 현대의학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외국학자들의 저서를 접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실 의사학자라기보다는 사회학



내지는 의료사회학의 범주에 속하는 학자들로 구미학계에서 대체로 '비주류'로 취급되는 사람들이다. 학문적 범주나 성향, 그리고 비중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나의 의사학적인 관심을 촉발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것은 외적 유발인자보다는 내 몸과 마음 속 깊게 자리잡고 있던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나를 의사학으로 이끈 더욱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다.

중학교 때부터 '역사' 책에 빠져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내가 가장 많이 읽은 책과 글은 역사에 관한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의과대학 재학 기간이나 생리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의학과 생리학에 관한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역사책을 대한 시간이 훨씬 많다. 그러한 내 모습을 염려해 주던 주변의 선배와 동료들에게 나는 아직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 중학교 3학년 무렵인 1960년대 중반부터 새로 나온 역사와 관련된 책은 능력이 닿는 대로 구해

읽고 기회가 허락하면 청계천변 등의 고서점에서 철 지난 책들을 뒤적이곤 하였으니 이제 30여년을 헤아리게 되었다.

지금껏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나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역사학 교육과 훈련을 1년반 동안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로 받지 못한 점이다. 남독(濫讀)을 통한 독학이 오늘날 의사학도로 자처하는 나의 학문적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일정한 틀에 갇히지 않았던 데에서 오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자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의사학계의 태두라 일컫는 김두중 교수의 《한국의학사》(1966년)를 처음 대한 것은 의예과 시절인 1971년 초여름 인사동의 어느 고서점에서였다. 의사학과 첫번째 해후였던 셈이다. 비록 예과생이었지만 의학을 선택한 바였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음에도 학술원상 저작상을 받는 등 이미 성가나 있었던 노대가의 노작을 처음 접한 인상은 별로 뚜렷하지 않다. 결국은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의사학과 인연을 맺을 '팔자'였지만
우회로를 거쳐야 했던 것을 상정한다고나
할까?

아직까지도 의학이 많은 사람에게
생소한 분야라고 하였지만 그 학문의
역사가 그리 일천하지만은 않다. 학문의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50여 성상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 비해 그동안 전문적인 연구자가
너무 적었다. 194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개교하면서 의학교실도 탄생하여
초기에는 3명의 교수가 활동한 적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두 분은 한국전쟁 통해
비운을 당해 김두중 교수 한 분이 아마추어
적인 우리나라 의사학계를 이끌었으며,
김교수의 은퇴 뒤에는 그 뒤를 이어받은
이영택 교수가 역시 홀로 강단을 지키는
형편이었다. 90여수를 누리고 1988년에
타계한 김교수와는 저서를 통한 만남뿐이었
으며, 학창 시절 강의의 받았던 이교수와도
10여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지내면서도
학문적인 교류는 크지 못하였다. 나는 내가
재직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사학계의 제1, 제2세대를 주도한 두 분과
직접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제3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 덕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의사학 관련도서는 불법 복사로 구해

나는 앞에서 말한 동기와 배경이
기인(起因)이 되어 결국 의사학에 투신할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전 세대의
경험과 축적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10여년 전이지만 의사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이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세계의
수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도대체 의사학의
학문동향이 어떠한지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정보망도 문제였지만 우연히 손에 닿는
것들도 성격이나 비중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정보도 태부족한 형편에 독학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에 따른 당연한 난관이
었다. 다행스럽게도 나에게 1987-88년과

1992-93년 두 차례에 걸친 해외연수의
기회가 왔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학학
문헌의 많은 부분이 그때 옥스포드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입수한 것들이다.
신간은 형편대로 구입하면 되지만
문제는 나온 지 오래되어 절판된
것들이었다. 대학 주변의 도서관에서
재수종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필요한
책이나 자료를 복사하는 것이었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만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의사학 도서관을 새로
꾸민다는 각오로 임하니 복사분량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두번째 연수 때에는 아예 한 주일에
이들을 '복사의 날'로 정했다. 또 하루는
복사물들을 정리하는 날로 삼고, 한꺼번에
여러 권의 책을, 그것도 통째로 복사한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UCSF 도서관의 층을
 옮겨다니며 (몇차례 지적과 핀잔을 받기도
하였지만) 늦은 점심을 샌드위치로
 때우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심히 저작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는
그 복사물들을 들고 멘
채 전철에 몸을
 실을 때에 느껴지는, 신체적 피로감이 주는
상쾌함과 신선함과 위안감이란.

결코 내세워 자랑할 수는 없는 내 행각의
결과물들이 나 자신과 동학들의 일차적인
지적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있다는
점에 나는 만족한다. 그보다도 나는
의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하필'이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질문자의
의도에 충실한 대답을 할 체비를
하고 있다. ◆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로 본 진화의 매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해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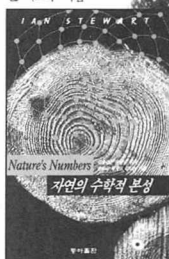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과비위성이 집힌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레이크 지음



⑤ **원소의 왕국**
화학 원소들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서의
산소는 여행이 될 것이다
피터 앳킨스 지음



⑥ **자연의 수학적 본성**
아름다운 관념의 우주,
수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눈송이는 왜 모두 6각형인가?
호랑이는 줄무늬, 표범은 점박이무늬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언 스텐워드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 계속 발간 됩니다. 영입 (02)861-4818 / (02)853-5608